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11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담당 자 • 지역사회통합돌봄팀장 • 담당자	박은경 ☎440-1551 최승실 ☎440-1556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에 시비 563억 긴급 투입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문제 해결 위해 재해구호기금 긴급 확보 -

- 국비 등 2차분 1,409억 원 군·구에 지원해 신청자에게 신속 집행 조치 -

인천광역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563억 원을 긴급 마련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8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재해구호기금 563억 원을 긴급 마련해 3월 11일 국비 포함 총 1,409억 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로 하여금 군·구 부담액을 확보하고,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입원·격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변경일자 | '22. 2. 14(월),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입원·격리통지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종사자 등

지원기준

○ 지급단가 :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내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

○ 지원일수 : 격리통지서 상 입원·격리일수만큼 지원(주만등록 상 동거자 기준)

※ 예) 가구내 입원·격리자 수 3인, 격리기간 7일의 경우 : 76,140원(1일) × 7일

(단위 : 원)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14일 할 상한)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일 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생활지원금은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변경사항

○ 재택치료자 가구 추가지원금 폐지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격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